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 추진

도의회 정책지원 토론회 전문가·학부모 관심 '후끈'

황대호(민주당, 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복지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요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비사업학교와 비교할 때 효과성이 탁월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니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장한별(민주당, 수원4) 의원은 인사말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논의를 위한 토론회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주제발표를 나서 "학생 지원과 관련된 교육복지정책은 다소 분절적으로 운영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영돼 왔다"고 지적한 뒤 "복지적·예방적·통합적 접근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를 이어갔다. 노 협회장은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법제화 노력과 공역자 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고한아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디렉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는 모범적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전제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왔고 이 사업이 종료된 학교에서 복지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고 디렉터는 "지금까지의 운영경험을 모아 경기도형

학교사회복지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학부모로서 토론에 참석한 김슬기 산남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학생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고 말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가정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사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 전문 시행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경기형 교육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승원 수원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시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과 체계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인은 현재의 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일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인창 기자

의회 의회 단신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시작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제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민주당, 성남3·사진) 의원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빅데이터 이용 안전 정책'과 '빅데이터 이용 도민 복지'에 경기도의 즉각적인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알람을 비롯한 출동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해 왔다.

이번 인파관리시스템은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5분 단위 실시간 인파 측정'과 '3시간 기준의 인파 증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재난부서를 비롯해 관련



부서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인파관리시스템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 실시간 인구 밀집 지도'와 '경기도 주요 지점(120여 곳)에 대한 인구 밀집 정보' '교통 정보'도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서비스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가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이동과 관련된 교통 문제와 '후쿠시마 방류'와 같은 특정 이슈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에 관심을 구했다.

김인창 기자



화성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 수돗물 정책공급 선제적 대응 촉구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화성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48건을 심의했으며 원안가결 47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됐다.

부결된 안건은 교육복지 위원회 소관 화성시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상균(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안전한 수돗물 정책공급을 위

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각종 이물질 포함 오염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민원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 및 하자발생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체제 구축 등 시 차원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김경희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강송수 기자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제시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 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진행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함께 가

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김대영 의원과 김민재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등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주요 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경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찾고자 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석정규(민주당·계양3)·문세중(민주당·계양4) 의원이 소속돼 있다. 안종삼 기자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선진지 견학

인천 동구의회 환경도시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방문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이 인천환경공단과 협력해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5일 진행된 '가좌하수처리장 및 인천교유수지 개선편향 심포지엄'과 연계된 행사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심포지엄 등의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 방문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문단은 먼저 서남물재생시설공단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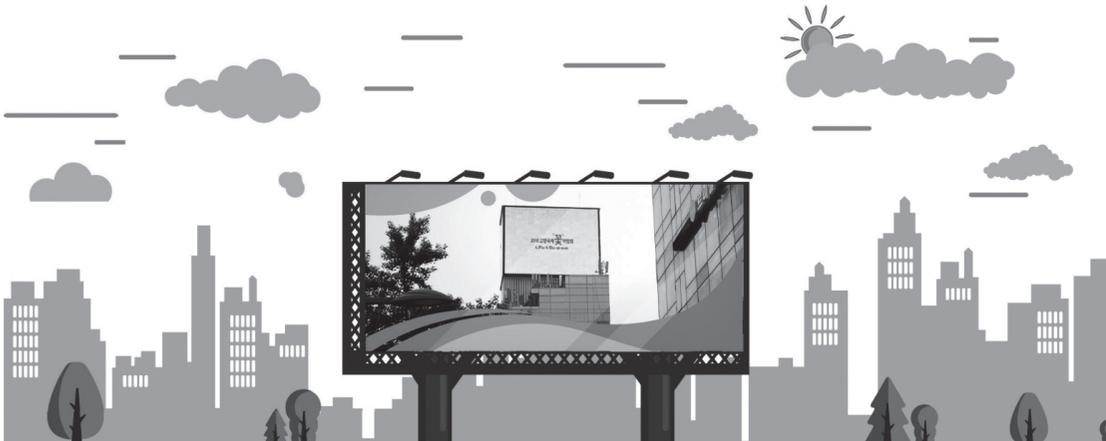
남센터 현장을 견학하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하수처리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악취가스 전기분해 시스템과 현대화 장비를 알아보고 지하화 추진 현황 등을 질문하며 동구 등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심포지엄의 후속 조치로 거버넌스 실현을 앞장서기 위해 인천 동구의회 최훈 위원장과 인천환경공단 최계은 이사장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동구청 환경위생과·건

설과 공무원, 동구 주민대표도 견학에 동참했다.

최훈 동구의회 의원은 "선진지 견학 및 현장방문을 밑도 없게 진행했으며, 인천교유수지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인 가좌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지도 본연의 목적인 방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친화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로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종삼 기자



▶ 차별화된 오프라인 광고

LED전광판 / 와이드 / 지하철 / 버스

- 도심 한복판 최적의 위치에 성공적인 마케팅 기획
- 고품질의 영상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와이드 조명,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 다양한 옥외광고로 귀사의 성공적인 홍보 기대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이어드립니다.

일간경기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74~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TEL : 032)508-0006 / FAX : 032)293-5030